최근 기업금융시장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분석

- 대출시장을 중심으로 -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경수 선임연구원(yksoo@kdb.co.kr)
이기은 선임연구원(keithlee@kdb.co.kr)

Ⅰ. 글로벌 기업신용현황
Ⅱ. 기업대출시장 주요 특징 및 리스크 요인
Ⅲ.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하였던 글로벌 기업신용은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신용 레버리지 또한 한국의 경우 코로나 이전대비 증가하여 세계적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 기업금융시장은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 등으로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비은행 위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기업신용 위험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시장을 기준으로 최근 기업금융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발생 이후 운영자금 수요 등으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둘째, 비은행 기업대출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기업대출은 부동산·건설 및 코로나 피해업종 위주로 증가하였다.

기업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 레버리지가 큰 폭 확대되는 동시에 연체기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른 부실확대가 가능한 점,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채무상환능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 3高(고금리·고환율·고유가) 장기화 및 체감경기 부진 등 거시경제 환경 악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기업금융의 급격한 확대로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경제·금융 여건 악화, 기업실적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재무건전성 저하 및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들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Ⅰ. 글로벌 기업신용[1] 현황

❑ 최근 통화긴축으로 글로벌 기업신용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한국은 증가세가 지속

○ 코로나 발생 직후 대량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20~'21년 중 글로벌 기업신용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高물가에 따른 통화긴축으로 증가세 둔화
- 미국 및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글로벌 추이와 유사하게 긴축기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소 하회하거나 유사한 수준

○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긴축기에 오히려 기업신용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2배 수준
- 정부부채 및 가계신용은 긴축기에 증가율이 둔화된 것과도 대조적

〈표 1〉 주요국 기업신용 금액 추이 및 증가율

(단위 : 조달러, 조유로, 조엔, 십조원, %)

			글로벌	유로존	일본	한국	미국
기업신용 잔액	'19년말		75.8	12.2	567.9	194.9	16.8
	'21년말		88.3	13.2	641.5	237.6	19.5
	'23.9월말		89.5	13.6	672.3	273.5	21.1
증가율	코로나 이전[2]		4.8	1.8	2.7	4.5	6.0
	코로나 이후[2]	완화[3]	8.1	3.6	4.8	9.3	7.2
		긴축[3]	1.8	1.8		9.9	5.7

자료 : BIS

〈표 2〉 한국내 경제주체별 신용 증가율 추이

(단위 : %)

			기업신용	가계신용	정부부채
증가율	코로나 이전[2]		4.5	7.8	5.1
	코로나 이후[2]	완화[3]	9.3	9.2	9.9
		긴축[3]	9.9	2.8	5.3

자료 : BIS

1) 본고에서는 국내외 기업금융 규모 비교를 위해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채무(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의 합)를 의미하는 "기업신용"을 사용하고, 국내 분석시에는 주 조달원천인 대출금과 회사채의 합을 "기업금융"으로 정의

2) 코로나 이전('16~'19년)과 이후('20~23.9월) 기간중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평균

3)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감안하여 '20~'21년을 완화기(EU는 '20.1Q~'22.2Q), 그 이후를 긴축기로 설정

❑ 글로벌 기업신용 레버리지[4]는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나, 한국은 코로나 이전 대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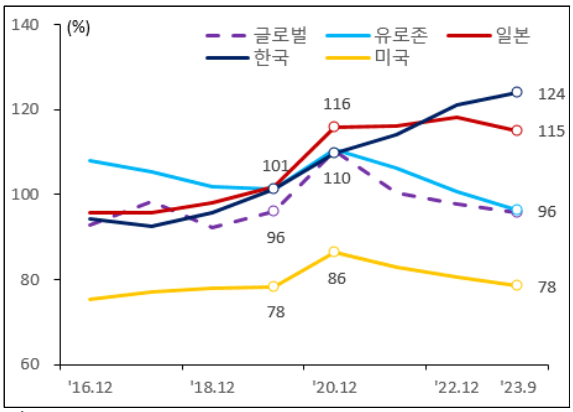
○ 글로벌 기업신용 레버리지[5]는 '20.4Q까지 통화완화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통화정책 긴축기 들어 감소

- 기업신용 뿐 아니라 정부부채 및 가계신용 레버리지도 통화정책 긴축에 따라 감소하여 전체 신용 레버리지는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은 수준 유지

○ 한국의 경우 '19년말 이후 기업신용이 GDP 성장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레버리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과다부채 임계치[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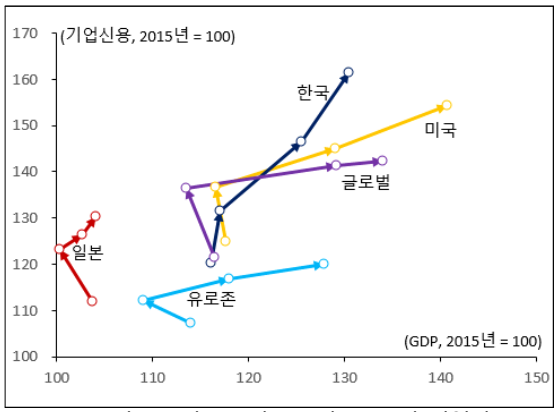
- 기업금융은 자금수요 지속 및 코로나 지원정책 등으로 빠르게 증가
- 기업신용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GDP는 글로벌 및 미국 대비 느리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 기업신용의 실물경제 성장 기여도가 낮은 편으로 판단됨[7]

〈그림 1〉 기업신용 레버리지 글로벌 비교



자료 : BIS

〈그림 2〉 글로벌 기업신용 및 GDP 추이



주 : '19년→'20년→'21년→'22년 GDP 및 기업신용
자료 : BIS, IMF

4) 신용 레버리지는 명목 GDP대비 경제주체(정부, 가계, 기업)별 신용금액을 의미

5) 분기별 글로벌 기업신용 레버리지(%) ; ('19.4Q) 95.9 → ('20.1Q) 97.1 → ('20.2Q) 104.0 → ('20.3Q) 107.3 → ('20.4Q) 110.4 → ('21.4Q) 100.3 → ('22.4Q) 97.8 → ('23.3Q) 95.8

6) '11년 World Economic Forum이 제시한 과다부채 임계치(%) :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

7)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기업신용의 증가는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거나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실위험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여왔다. 반면, 비생산적인 부문이나 한계기업 등에 필요 이상으로 유입되는 경우 자산가격 상승, 부실의 이연·누적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22.6월, 금융안정보고서)고 언급

〈참고 1〉 **경제주체별 글로벌 신용 레버리지 비교**

❑ **(글로벌 및 주요국) 신용 레버리지가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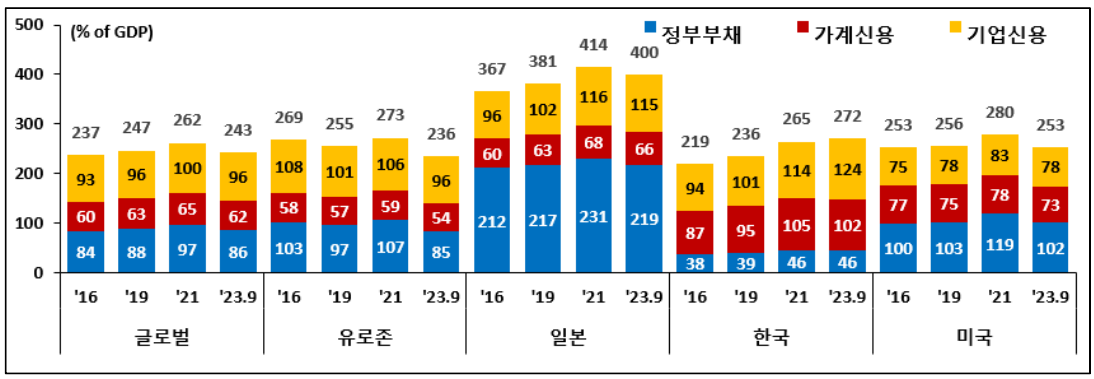
○ (코로나 발생~'21년) 각국 위기대응으로 인한 통화완화로 신용 레버리지 증가
- 정부부채[8] 레버리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22년 이후) 高물가 등으로 인한 통화긴축으로 신용 레버리지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단, 일본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
- 정부부채 레버리지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

❑ **(한국) 신용 레버리지가 기업신용 위주로 확대되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높은 수준**

○ (코로나 발생~'21년) 위기대응으로 인한 통화완화로 신용 레버리지 증가
- 글로벌 및 주요국과는 달리, 기업신용 레버리지가 가장 큰 폭 증가

○ ('22년 이후) 글로벌 및 주요국과는 달리, 통화긴축기에도 신용 레버리지 상승
- 가계 및 정부부채 신용 레버리지는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나,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크게 증가



자료 : BIS

8) BIS 통계에서의 정부부채(Government debt)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이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대출 및 국채 등으로 구성됨

Ⅱ. 기업대출시장 주요 특징 및 리스크 요인

1. 규모 및 구성

❑ 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 기업금융(대출+회사채) 잔액 크게 확대

○ 고금리,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업금융은 자금수요 지속, 코로나 지원정책 등으로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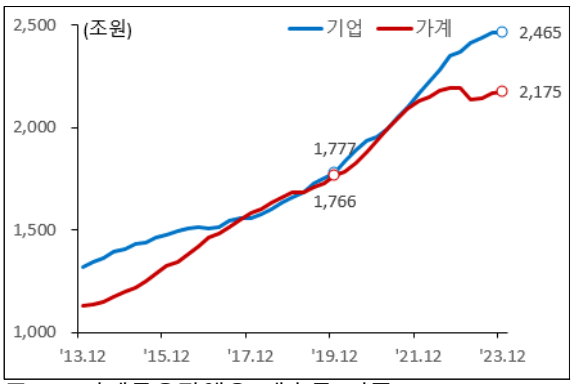
- 기업금융잔액('23년말 2,465조원)이 경제규모(명목 GDP)를 상회하면서 GDP 대비 기업금융잔액은 '19년말 0.92배에서 '23년말 1.10배까지 지속 확대

❑ 코로나 지원 금융정책 등으로 인해 기업금융시장內 대출 비중 증가

○ 코로나 지원 금융정책, '22~23년 회사채 투자심리 위축[9] 등의 영향으로 대출 비중이 '19년 73.6%에서 '23년 78.3%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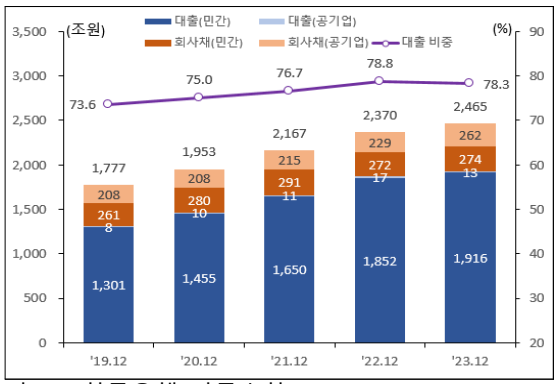
○ 공기업 순손실(한전 등)에 따른 공사채 발행 증가로 민간기업의 회사채 발행 시장 접근 제약이 발생한 점도 대출 위주의 자금조달 심화요인으로 작용

〈그림 3〉 기업금융잔액 규모(가계 비교)



주 : 가계금융잔액은 대출금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그림 4〉 차입수단별 기업금융잔액 규모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9) '22~'23년 중 금리 인상, 신용 이벤트('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경기하방 위험 증가 등에 기인

2. 질적 현황

❑ 대출 금리의 고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대비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

○ 금융권 기업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1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한 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코로나 이전대비 높은 편

○ ‘22년부터 금리인상 및 회사채 투자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여건이 악화되어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회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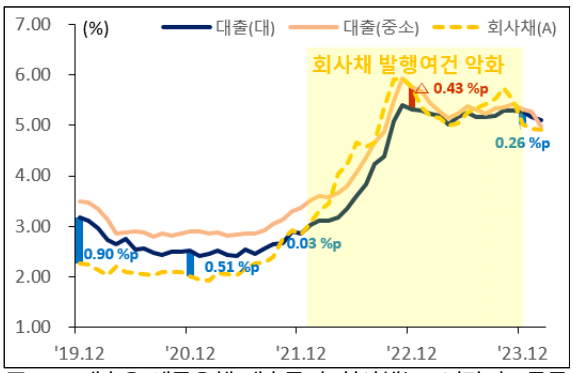
- ’22~‘23년 중 상당기간 예금은행 대기업 대출금리가 3년만기 A등급 회사채 금리 하회

❑ 비은행 위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신용위험도 높은 수준으로 지속중인 상황

○ 최근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등 영향으로 비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전사)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며, 은행은 ‘19년말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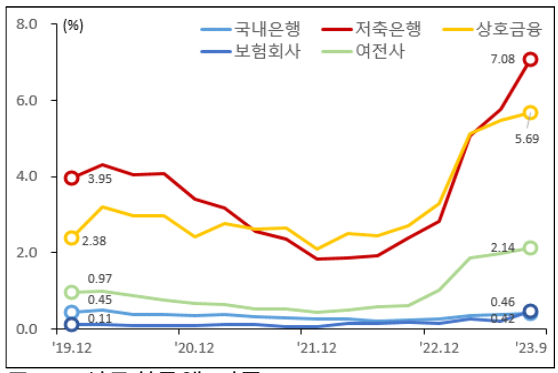
○ 기업신용위험도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 등에 따라 중소기업 위주로 높은 수준으로 지속

〈그림 5〉 기업금융 금리(대출, 회사채)



주1 : 대출은 예금은행 대출금리, 회사채는 3년만기 A등급
주2 : 연도말 (대기업 대출금리 – 3년만기 회사채 금리) 표시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그림 6〉 기업대출 연체율



주 :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표 3〉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21년				'22년				'23년				'24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대기업	6	6	0	3	6	8	11	22	6	14	6	3	3	8
중소기업	21	18	24	12	14	25	25	39	25	33	28	28	33	33

주 : 지수가 양(+)이면 서베이에서 「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의미, '24.2Q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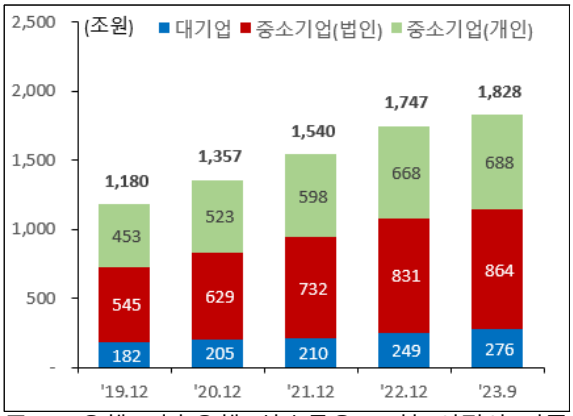
3. 기업대출 현황 및 주요 특징

❑ (기업규모별) 코로나 이후 운영자금 수요 등으로 大·中小 모두 대출이 크게 증가

○ (대기업대출) 위기대응 용도의 선제적 차입,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 등으로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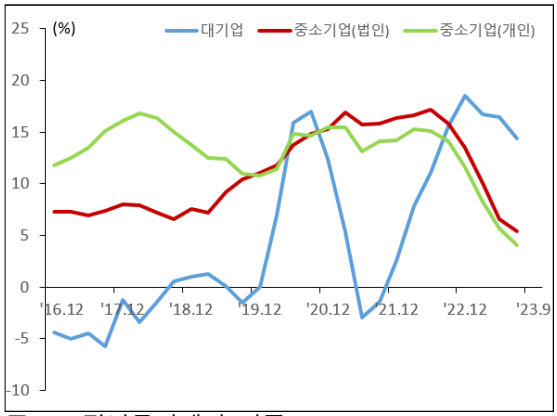
○ (중소기업대출) 운영자금 수요 증대, 정부 코로나위기 대응 금융지원 정책 등에 따라 법인 중심으로 증가세 확대
- '23년에는 고금리 등 차주 상환부담 증가,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대기업대출에 비해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남

〈그림 7〉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잔액



주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그림 8〉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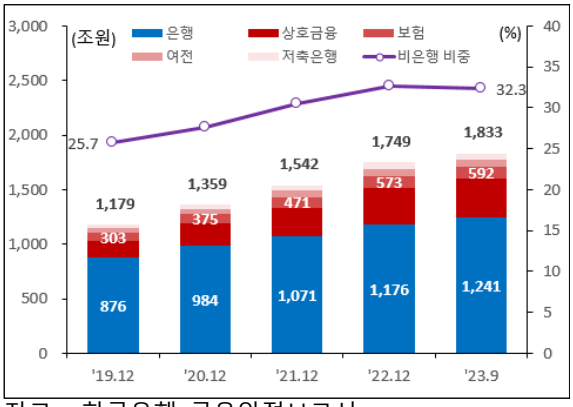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업권별) 비은행 기업대출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

○ 전업권에 걸쳐 기업대출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특히 비은행이 부동산 등 기업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비은행 비중 확대
- 비은행 중에는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 순으로 높은 증가율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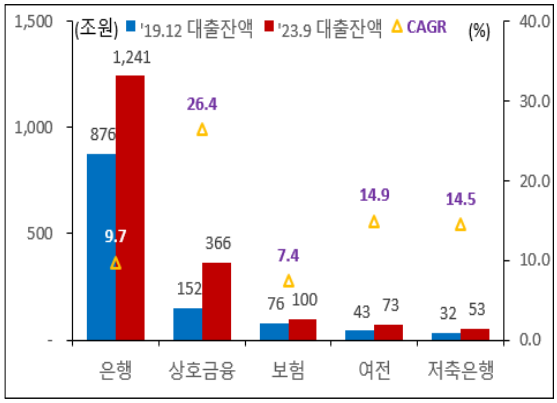
○ 은행은 대·중소기업(법인) 중심, 비은행은 중소기업(개인 포함) 중심으로 증가
- (은행대출) 기존 회사채 발행이 은행권 차입으로 전환되어 증가율 측면에서 대기업이 가장 높은 수치 기록
- (비은행대출) 증가율이나 규모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지배적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 및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은행대출 접근성이 낮아 비은행 활용 증가

〈그림 9〉 기업대출잔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그림 10〉 세부업권별 대출잔액 및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표 4〉 은행·비은행 기업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 대 vs. 중소

(단위 : 조원, %)

	누적 증가액		CAGR	
	은행	비은행	은행	비은행
대기업	87.2	6.3	12.4	6.3
중소기업(법인)	166.3	152.5	10.2	19.0
중소기업(개인)	111.7	122.9	7.9	21.3
전체	**365.2**	**281.7**	**9.7**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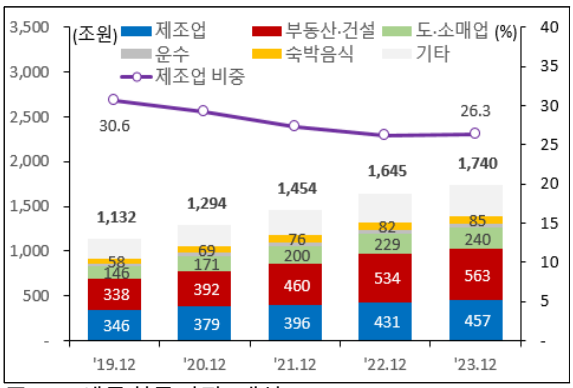
주 : '19년말 대비 '23.9월말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업종별) 부동산·건설 및 코로나 피해업종 위주로 대출이 늘면서 제조업 비중 축소

○ 코로나 이후 부동산·건설업과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대출이 확대
-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과거부터 지속된 저금리, 부동산경기 확장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며 '20년말부터 대출잔액 기준 제조업 상회
- 코로나 피해업종은 정부의 코로나 지원정책, 원자재가격 상승 및 업황 악화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대출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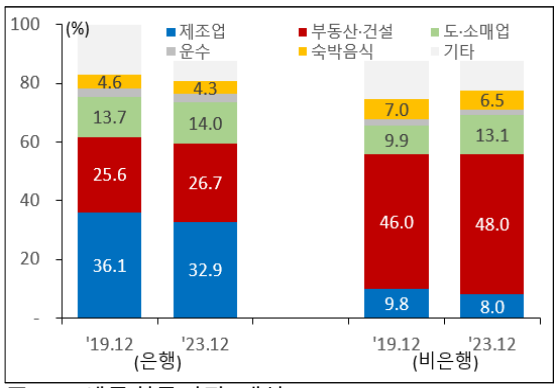
○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대출 비중 감소
-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부동산·건설, 코로나 피해업종(도·소매, 숙박음식)의 대출 비중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 비중 축소
- 특히, 비은행 기업대출 증가액('19년 이후)이 부동산·건설에 집중되면서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그림 11〉 업종별 기업대출 잔액



주 : 예금취급기관 대상
자료 : 한국은행 산업별대출금

〈그림 12〉 은행·비은행 기업대출 업종별 비중



주 : 예금취급기관 대상
자료 : 한국은행 산업별대출금

〈표 5〉 주요 업종별 기업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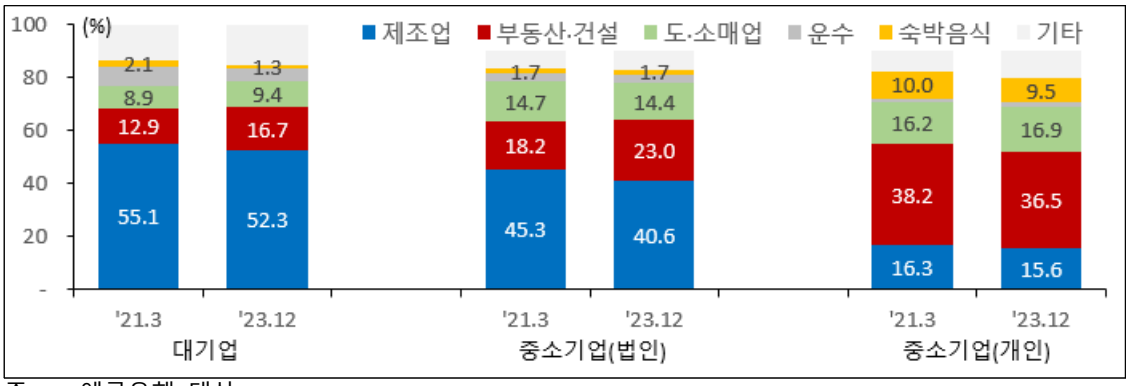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부동산·건설	도소매	숙박	제조업
은행	113	57	14	97
비은행	112	37	13	13
전체	225	94	27	110
CAGR	13.6	13.3	10.4	7.2

주 : 증가액은 '19년말대비 '23년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산업별대출금

○ 기업규모별 업종별(예금은행 기준) 대출잔액 비중은 대·중소(법인)에서 부동산·건설 비중이 큰 폭 증가한 반면, 모든 기업규모에서 제조업 비중 감소

〈그림 13〉 기업규모별 업종별 대출잔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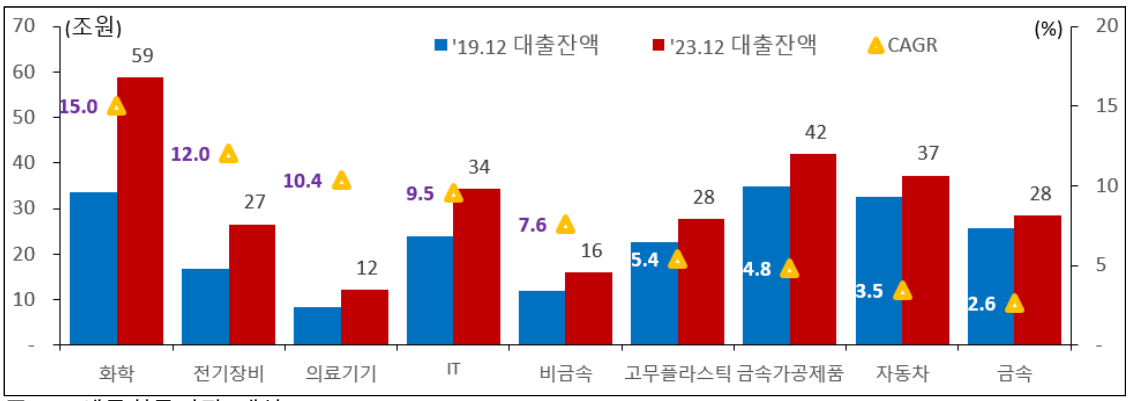


주 : 예금은행 대상
자료 : 한국은행

○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타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나, 화학, 전기장비, IT 등의 산업에서는 대출이 큰 폭 증가

- 화학은 석유화학업체의 코로나 대응 현금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이, 전기장비는 이차전지 관련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증가 원인
- IT는 반도체 업체들의 시장경쟁력 유지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대출 증가

〈그림 14〉 주요 제조업종 대출잔액 및 증가율



주 : 예금취급기관 대상
자료 : 한국은행

4.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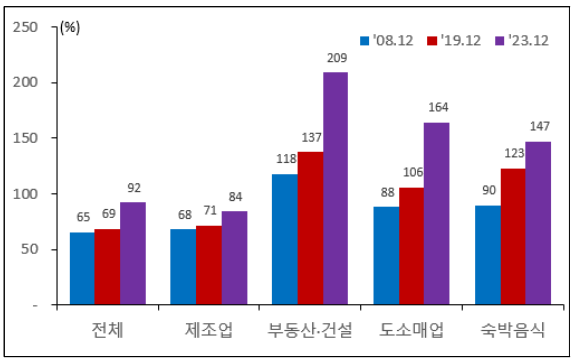
❑ 기업대출 레버리지[10]가 과거대비 확대된 가운데, 특히 부동산·건설 업종의 대출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체기업 비율도 증가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대비 전반적으로 기업대출 레버리지가 확대

○ 부동산·건설 대출 레버리지가 큰 폭 확대되었으며 부동산·건설업 연체기업 비율 증가
- 부동산·건설업의 레버리지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향후 거시경제환경 악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상존
- ’21년부터 부동산·건설 업종 연체기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증가액 중 50% 이상이 중소기업(법인)에 집중된 점도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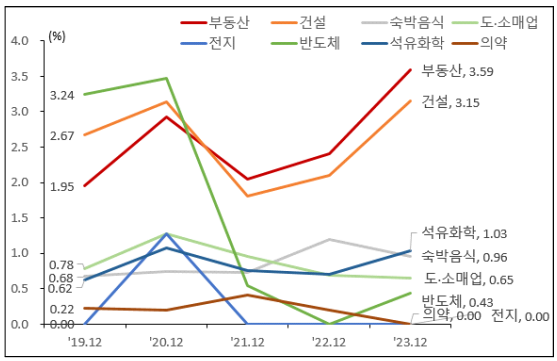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도·소매, 숙박음식업도 대출 레버리지 증가폭이 큰 편
- 숙박음식업 연체기업 비율은 ‘19년말대비 다소 상승한 반면, 도·소매업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다만, 대출 레버리지 증가폭이 컸던 점 감안시 향후 경기회복 지연, 소비여력 감소 등이 신용리스크 현실화 요인으로 작용 여지

〈그림 15〉 업종별 대출레버리지 추이



주 : 산업별 대출채권/해당업종 GDP(명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6〉 주요업종별 연체기업 비율 현황



주1 : (3개월 이상 연체기업수)/(전체 기업수)
주2 : 외감법인 대상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10) 해당업종 GDP대비 대출채권 비중으로 계산하며, 산업별 대출의 리스크 판단시 감안하는 지표

〈표 7〉 기업규모별 부동산·건설 기업대출 증가액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대기업	2.2	9.6	5.4
중소기업(법인)	14.6	19.0	16.3
중소기업(개인)	9.0	2.0	1.6
기 타	1.0	1.3	1.6
전 체	**26.8**	**31.9**	**24.8**
중소기업(법인) 비중	54.5	59.4	65.6

주 : '21년은 '21.1분기말 대비 '21년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산업별대출금

❑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11] 채무상환능력도 크게 저하된 점도 유의 필요

❍ '22년 하반기 이래 국내 외감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지속 둔화
- 매출액증가율은 '22.3분기부터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대기업 매출액증가율 하락세 중소기업에 비해 큰 편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2.1분기부터 전년동분기대비 둔화 기조 지속 중

〈표 8〉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

		2021				2022				2023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매출액 증가율	전체	7.4	18.7	15.4	24.9	17.0	20.5	17.5	6.9	0.4	△4.3	△5.2
	(대기업)	7.1	20.2	16.7	26.7	20.1	23.0	19.0	7.5	0.7	△4.8	△5.8
	(중소기업)	8.5	14.1	11.4	19.5	7.5	10.2	11.0	4.3	△1.2	△2.0	△2.7
매출액 영업 이익률	전체	6.4	7.4	7.5	5.8	6.3	7.1	4.8	1.3	2.8	3.6	4.0
	(대기업)	6.5	7.7	8.3	6.5	6.6	7.4	4.7	1.6	2.4	3.3	4.1
	(중소기업)	6.0	6.4	5.0	3.7	5.3	5.8	5.4	0.0	4.7	5.0	3.9

주 :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매출액증가율은 전분기수치와 비교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동분기 수치와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분기, 외감기업 기준) 참조하여 작성

○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채무상환능력 크게 저하되어 기업부실 가능성 상존

- 대표적인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은 '22.3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23년 들어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전대비 크게 낮은 수준

〈표 9〉 기업 채무상환능력 지표 추이

(단위 : %)

		2021				2022				2023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이자 보상비율	전체	678.3	787.0	796.5	579.2	723.1	784.7	487.1	115.6	214.6	252.4	235.9
	(대기업)	765.2	947.0	1,026.1	838.2	911.1	888.8	510.7	154.3	202.3	242.6	302.3
	(중소기업)	445.2	486.2	362.2	211.9	384.6	465.1	409.0	2.6	251.1	286.3	114.8

주 : 해석시 전년동분기와 비교 필요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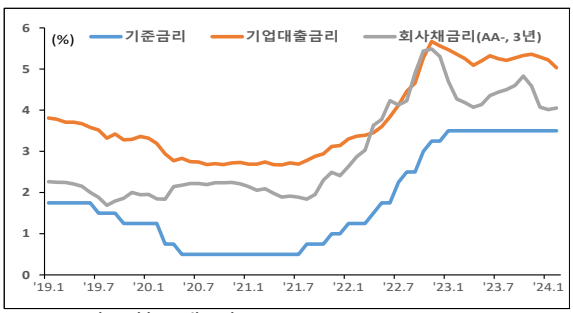
❑ 3高 현상(고금리·고환율·고유가) 장기화 및 체감경기 부진 등 거시경제 환경 악화

○ 기업대출 및 회사채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고금리 수준 지속되고 달러화 강세, 고유가 지속

- 원자재·중간재 수입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금리로 인하여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 특히,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어 외부환경에 따른 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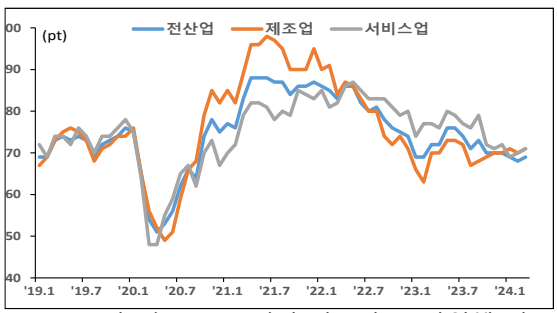
○ 반도체·IT 등 일부 산업에 업황 회복세가 집중되어 기업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

〈그림 17〉 기업 차입여건



주 :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8〉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 추이



주 : 숫자 낮을수록 '경기 나쁘다' 응답업체 많음
자료 : 한국은행

Ⅲ.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 이후 기업금융의 급격한 확대로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증대된 가운데, 경제·금융 여건 악화, 기업실적 저하 등 고려시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국내 기업금융 레버리지는 코로나 시기 경제성장속도를 상회하는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면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시 큰 폭 상승

○ 고금리·고환율,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 PF 부실 경계감 등 비우호적 경제·금융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기업금융 리스크 증대 요인

○ 국내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민간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위축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상황[12)]

- 특히, 기업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취약기업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예상

❑ **부동산·건설업 위주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해당 업종 재무건전성 저하,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에 사전 대비할 필요**

○ 부동산·건설 대출 레버리지가 코로나 이후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최근 연체기업 비율이 지속 상승 중인 점 등 감안시, 재무구조 취약 중소건설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

- 이에 시장금리, 미분양 증가 등 시장 여건, 시공능력 열위 건설사, 취약 사업장 부실위험 등 부동산·건설 시장에 대한 지속 점검 필요

○ 부동산 PF 사업의 수익성 악화시 PF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애로가 자금조달 시장 전체의 경색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

- 일시적 유동성 경색 발생에 대비하여 시장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PF-ABCP 매입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시장 안정자 역할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

12)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는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거시경제 영향으로 ①경기변동성 증폭, ②민간 레버리지 급증에 따른 실물·금융 하방리스크 확대, ③ 정책여력 제약 및 정책효과 감소를 언급함(BOK 이슈노트 제2021-29호)

❑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들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선별적·대규모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

○ 경기 회복을 위해 금융중개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

- 금융기관이 위험관리 측면을 강조하여 자금공급을 크게 축소하면 기업들의 신용경색 유발 등 경기하강이 가속화될 우려
- 다만, 금융기관들은 기업 신용위험 상승에 대비하여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유지 노력을 병행할 필요

○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코로나 시기 비제조업 대출이 제조업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포트폴리오內 부동산·건설 비중도 급증

- 이는 산업발전을 위해 리스크를 부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하였다는 반증

○ 주로 제조업에 해당하고 高리스크·장기 회수기간의 특성을 보유한 첨단전략산업, 산업대전환 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 강화

-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과 그린·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 수요에 대해 중점 대응하고, 중소기업은 핵심 소부장 기업, 혁신벤처 등 지원에 집중

참고문헌

[국문자료]

한국신용정보원(2024), 금융건전성 현황(기업금융분석지원시스템)
한국은행(2021), “BOK 이슈노트 No.2021-29;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
_____(2022),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호)
_____(2023),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호)
_____(2023), 2023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보도자료), 2023년 12월
_____(2024), 2024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주(BSI) 및 경제심리 지수(ESI)(보도자료), 2024년 1월
_____(2024), 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보도자료), 2024년 2월
_____(2024), 2024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보도자료), 2024년 2월
_____(2024), 2023년 4/4분기 산업별대출금(보도자료), 2024년 3월
_____(2024), 2023년 자금순환(잠정)(보도자료), 2024년 4월
_____(2024),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보도자료), 2024년 4월

[영문자료]

BIS(2015), “A new database on general government debt”(BIS Quarterly Review, 2015.9월호)
___(2024),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Metadata)
IMF(2023), “World Economic Outlook”
Levine, Ross(2004), “Finance and Growth:Theory and Evidence”(NBER Working Paper Series 10766)